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 BETTER PEOPLE BETTER WORLD

## 인류의 건강을 위한 콩 연구가의 고집있는 신념

머릿글 (사)한국가족상담협회 회장 오제은  
6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커버스토리 (주)정·식품 명예회장 정재원

나의 경영이야기 협운해운(주) 회장 마상곤

지자체특강 동국대 한의과대 교수 김동일

세상을 보는 눈 줄리엣카운셀링센터 원장 노혜진

회원&연구원소식

특별칼럼 CATA golf Academy 대표 최혜영

발행인편지 / 리더십 이야기 / 조순 칼럼

표지인물 정재원 (주)정·식품 명예회장 / 사진 오경근 원장

# 6

2005 June

등록번호 [매체] 등록번호: 서울 라 09006 발행일: 2005년 6월 1일 발행인: 정만기 인건개발연구원(KHIHDI) 주소: 138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경양주채곡 B/D 5층 T. 2203 3500(☎) F. 2203 1974 www.khihdi.or.kr 디자인: 디자인포드 www.cofid2.com 인쇄: (주)동명인쇄 T. 462 6323





# 저렴하게 드리는 것만이 최선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매년 마일리지카드 적립 포인트의 일정금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연중 캠페인 '더불어 잘 살기'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마일리지 기부단체

2000년  
환경 운동연합  
한국 복지재단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국군장병 돕기

2001년  
환경 운동연합  
한국 복지재단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국군장병 돕기

2002년  
환경 운동연합  
한국 복지재단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국군장병 돕기  
사랑의 대바자(12월)

2003년  
환경 운동연합  
한국 복지재단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한국 심장재단  
사랑의 대바자  
수재민 돕기

2004년  
환경 운동연합  
한국 복지재단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아름다운 가게  
사랑의 대바자  
(대한적십자사)  
수재민 돕기



# 그냥 들어주는 일 Listening & Healing

오제는 (사)한국가족상담협회 회장 / 천안대 교수

**사** 람들은 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호소한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  
의 핵심은 서로의 깊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듣는 것'이  
다. '그냥 들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관심을 가져주는 일'이다. 특별  
히,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이다.

'들음'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연결시킬 수 있다. 듣는 사람은 또한 말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듣고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듣는 것의 초점은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이다. 말을 하고 있는 사  
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이 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다른 어  
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이다.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잘 들어주게 되  
면 말을 하는 사람은 단지 그 말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고통  
그 자체보다도 그 고통을 누군가와 나누지 못했다는 데 있다. 즉, 누  
군가가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나눠주는 경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  
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아무리 처절하고 아픈 고통의 경험이라 할지  
라도 누군가가 그 고통을 깊이 들어주고 나눠주기만 한다면 그 고통은  
전혀 다른 의미로 승화 될 수 있다. 단지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눈물을  
터트리는 사람들을 나는 종종 대하게 된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티슈  
를 건네주는 일조차도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터져 나오는 중요한

순간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로는 그저  
들어주는 일에만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울고 싶을 만큼 실컷 울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자신과 함께 있었던 나를 발견한다.

누구에게나 맘껏 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눈치도 간섭도 없이 마  
음껏 소리 내어 울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  
로 침묵하며 '그냥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  
에 와 닿지 않는다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  
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인간관계 문제의 공통적  
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마음을 전달할 수 없는 문제에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음의 능력'을 잃어 버렸  
기 때문이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고 사랑하  
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그 사람의 가슴 위에 당신의 손을 얹고, 당신의 가슴 위에  
그 사람의 손을 얹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라. 가슴으로 말하라. **人間**



## 오제는 교수

캐나다 퀸즈대 졸업 / 美 하버드대 가족치료, 목회상담학 석  
사 / 캐나다 토론토대 박사 / 미국심리치료협회(APA) 임상감  
독(Diplomate) / 서울신학대 상담대학원 강사 / 크리스천차유  
상담연구원 조교수, 수퍼바이저 / 한국가족상담학회 부회장 /  
한국상담학회 이사 / 서울가정법원 가정법률조정위원 / (사)한  
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부회장 / 현 천안대 상담학과 주임  
교수, (사)한국가족상담협회 회장, 한국가족상담센터 대표



**격변하는 중동정세와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1404회 6월 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우지 마노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국가정책 과제로서의**  
부패문제

1405회 6월 9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지역은 다양한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곳으로 민족, 종교갈등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동지역에 국내의 개혁 요구와 미국의 민주화 압력이 맞물리면서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숙명의 앙숙관계로 알려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역과 가자지구에서 점진적 철수방침을 세우고, 팔레스타인은 아라파트 사후 온건파로 분류되는 내각이 들어서면서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는 등 화해의 무드를 맞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난민문제 등의 난제들이 남아있어 향후 정세 변화가 주목된다.

그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의 대립은 중동 분쟁의 핵심이었다. 이들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조국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1897년부터였으며,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권은 4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우지 마노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초빙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중동정세를 살펴보는 한편 이스라엘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부패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한 불법 부당 행위로 정부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우리사회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부패보다 구조적, 체계적, 조직적으로 연계된 부패가 사회발전의 효율과 형평에 끼치는 역기능이 크다는 것이다.

산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 2005'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22위로 1년 사이에 3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정치가 및 행정관료 부문의 경쟁력은 전년 30위에서 32위로 떨어졌다. 정치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뇌물 및 부패문제에서 향상을 보이지 못한 까닭이다. 특히 정치가의 경쟁력 항목은 6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최근 유전개발 의혹사건과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사건은 오늘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부패근절을 위해 싸우려면 강한 법을 가지고 정직한 정부기관이 법을 공정하게 시행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비리는 밖으로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줄어들게 된다. 공직부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기구의 개설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을 초빙하여 정부신뢰도 추락과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패문제를 국가정책의 과제로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6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서로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관 공보영사

- 이스라엘 외무부 인권사회 및 UNESCO와 서기관
- 이스라엘 외무부 이란과 과장
- 이스라엘 외무부 마약관련업무 수석조정관
- 이스라엘 외무부 국제기구1과 과장
- UNESCO, ITU, WHO총회 이스라엘 대표단
- 주 태국 이스라엘 대사, 태국 상주 주 캄보디아 이스라엘 대사
- 이스라엘 외무부 국제기구 국장
- 이스라엘 마약청 국제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법학 석사
- 경북대 법학 박사
-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과장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 서울지검 북부지청 차장 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국민대 교수, 총장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한국법학원 원장
- 〈상훈〉 홍조근정훈장, 한국법률문화상
- 〈저서〉 각국 보호처분제도 조사연구, 부정경쟁행위론, 내사론 외

## 동북아 허브로서의 인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1406회 6월 16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박호군 인천대학교 총장

최근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특구로 떠오르는 송도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리고 인천대는 송도 신캠퍼스 이전계획 추진과 함께 박호군 총장의 취임 이후 동북아 '허브'를 꿈꾸며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인천대는 연구·생산기지로서 외국 유명대학들과의 공동연구, 산학협력 등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며, 2008년 송도로 이전 되었을 때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중국학, 국제물류, IT, BT, 국제통상분야를 특성화해 나가고 있다. 지리적·문화적·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 기반을 굳건히 하고 전문가를 육성하여 인천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천에 국립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인천대의 실질적인 국립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송도와 산·학·연 연계를 추진해 특성있는 대학으로의 변모와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중국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여 가장 큰 물류 교역상대인 중국에 대해 이해하며,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인천대 박호군 총장을 초빙하여 대학개혁의 새로운 시도로써 지역사회와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진정한 산학협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화학과 졸업
- 美 일리노이대 화학 석사
- 美 오하이오주립대 이학박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 과학기술정책연구위원회 이사
- 국회환경포럼 자문위원

-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 남북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위원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산업자문부 국가기술혁신단 위원
  - 제5대 과학기술부 장관
- <상훈> 20세기 환경 인물 50인, 제3회 인천시 과학 기술 대상, 국민훈장 목련장

## 나의 검사시절 회고와 일본사회의 미래

1407회 6월 2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훗타 스토무 사와야카복지재단 이사장

지난 70년대 일본 파벌정치의 대부분 '정치 는 돈과 머릿수'라는 유명한 슬로건을 남긴 다나가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는 '서민 총리'라는 별명을 얻으며 중일국교정상화 등의 업적을 남긴 일본 정계의 최대거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미국의 록히드사가 비행기를 팔기 위해 일본의 정부고관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 있던 다나가는 법정에서 세게 되었다. 약 10년에 걸쳐 진행된 록히드 사건은 오직(汚職)과 파벌 항쟁이라는 두 원인이 얽혀 만들어낸 정변이었다. 당시 동경지검 특수부 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훗타 스토무 검사는 전 총리를 비롯한 권력자들을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 및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검찰이 권력을 수사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고 정치적 중립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우선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각종 의혹과 비리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행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록히드 사건 당시 외로운 투쟁으로 다나가 전 총리를 투옥시킨 장본인이며 검찰총장 등의 정치적 출세의 길을 떠나 따뜻한 상부상조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린터적인 인생을 걷고있는 훗타 이사장을 초빙하여 일본사회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日 동경대 법학부 졸업
- 대판지검 특수부 검사
- 법무성 형사국 부검사
- 주미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
- 동경지검 특수부 검사
- 갑부지검 검사정
- 법무대신관방장

- 건설성 중앙건설업심의회 위원
  - 문부성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 후생성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위원
  - 경기청 국민생활심의회 위원
  - 동경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후로성 사회보장심의회 복지부회, 의료부회 위원
- <저서> 벽을 뚫고 나아가라, 뽀내지 마라上司!, 마음의 부활, 삶의 보람 大國, 中年이요 꿈을 품으시오 외

## 변화혁신과 비전경영

1408회 6월 3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

윤리와 이윤, 이 두 가지는 과거 기업 풍토에서는 늘 대척점에 있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버려야 했고, 기업 경영에서는 이윤추구가 최상의 가치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경영기법이 바뀌면서 궁극적으로 이윤추구만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오래가기 힘들어졌다.

이처럼 변화와 혁신, 비전이 경영의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각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은 2000년 5월 취임과 동시에 기업문화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는데 주력했다. 물건을 파는 일반 제조업체와는 달리 '사람장사'라고 불리는 보험업의 성격상 고객의 마음과 신뢰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 회장은 내실경영과 윤리경영을 앞세워 교보생명의 결과 속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취임 이듬해 선포한 '교보생명의 비전'은 몸집보다 '질경영'을 강조해 2010년까지 동북아시아에서 업계 최고의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각 조직들이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행하려 하지만 막상 실천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신 회장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윤리경영을 통한 이윤추구로 기업의 생명을 길게 볼 것을 주문하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초빙하여 변화와 혁신 그리고 비전을 세우는 경영철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의학과 졸업
- 서울대 의학 석사
- 서울대 의학 박사
- 서울대 의과대 교수
-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과장
- 대산문화재단 이사
- 교보생명보험 부회장

- 교보생명보험 이사회 의장
  - 대한암협회 부회장
  -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 <상훈> 직원능력개발 대통령상, 한국능률협회 최고 경영자상, 제회 기업윤리대상, 한국CEO대상, 고객 만족경영대상 5회 연속 수상 외



# 한국 현대사를 말한다 -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과 건설하는 사람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우리가 하느님께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의 역사를 건설해 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자. 하나님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우리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분들의 이름은 거의 없고 뜻밖에도 우리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묻기를 "경상북도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보낸 사람인데 교육부 장관은 다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올라 와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교육부 장관들이 교육 역사를 얼마나 건설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능시험 제도를 만들어 60만 명을 한 줄에 세워서 입학을 결정하는 개성도 무시되고 장래성도 돌보지 않는 교육을 하는 나라는 선진 국가에는 없다. 오히려 초등학교 선생이 버림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산골에 있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며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제140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5월 4일(수)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 역사를 건설하는 사람, 역사를 관리하는 사람, 역사를 파괴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역사를 관리하는 사람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역사를 건설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역사 건설은 늦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역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건설하기보다는 역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너희들은 역사를 건설하는 사람과 역사를 관리하는 사람과 역사를 파괴하는 사람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구분하지 못하면 사회의 앞날이 밝지 못할 것이다."

많은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가 독일 역사를 건설해 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게 역사를 파괴한 사람이 되었다. 한때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레닌이나 스탈린이 역사를 건설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를 건설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지성사회에서는 없다. 마치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그 사람들의 동상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역사를 파괴했지 역사를 건설했다고 보지 않는다. 나는 2차 세계대전 말에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태평양전쟁이 역사를 발전시킬 것으로 과신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은 역사의 파멸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한 세기 동안 역사의 과정을 거치오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역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파괴하는 것도 많고 건설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집단에서 민중에게로 바뀌고 있는 변화를 목격했다. 한때는 임금님이 역사를 건설했고 다음에는 정치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었고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각 분야의 민간 지도자들이 역사를 건설해 가고 있다.

우리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다. 경제를 세계적으로 성공시킨 나라의 경제발전의 큰 흐름은 기업인들이 앞장선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인들이 앞장서 국내에서 세계로 진출을 한다. 정부는 뒤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아직도 정부가 기업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 같다.

교육도 그렇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야 한다.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교육 이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정부는 거기에서 성공한 학교를 소개해 주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두환 정권



때는 모든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매주마다 하는 훈화내용까지 지시를 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진 국가인지는 교육자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된다. 수능시험으로 60만명을 한 줄로 세워 교육하겠다는 생각이 교육을 파괴하고 있다.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건설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 안 된다.

### 역사의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지성인들의 수가 늘어나야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역사를 파괴하는 세력을 줄이고 역사를 건설하는 세력을 키워야 한다. 더 이상 역사를 파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젠 우리가 역사를 건설하는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리석은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스페인 대학의 율케가 라는 철학 교수는 <대중의 붕괴>라는 그의 저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자유로운 지성들이 줄어들고 침묵을 지키고, 어리석은 군중이 날뛰는 사회가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역사의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지성인들의 수가 늘어나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선입관념이나 고





정관념의 노예가 된 사람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역사도 사회도 자꾸 바뀌면서 발전해 가는데 과거의 고정관념과 선입관념에 매달려 모두가 나를 따라오길 바라다면 그것은 큰 불행이다. 이상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지난 100년 동안 역사를 보면 세계는 크게 변했다. 선진국가는 보수와 진보를 따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한 나무에서 자란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거나 공화당이 집권하더라도 80%는 그대로 있고 정책은 20%정도만 차이가 있다. 영국도 노동당과 보수당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한 나무에서 자란 보수와 진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대부분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랐다. 극단의 진보주의는 사실은 마르크스주의를 배경으로 한 좌익 운동으로 자랐다.

### 보수와 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나무에서 자란 두 가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캐나다나 북유럽이 시도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란 것이다. 공산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수다 진보다 하는 것은 나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냉전시대 20세기 초창기로 돌아가 그 나무뿌리를 가지고 보수냐 진보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어리석은 싸움이다.

그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인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미래를 봐야 한다. 내가 보수에 속해 있거나 진보에 속해 있거나 미래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가 되느냐를 보고 해결해야 한다. 미래를 보게 되면 무엇을 소망스런 세계라고 생각하나. 벌써 70~80년 전부터 선진국가는 개방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폐쇄사회로 가느냐를 그것으로 판단한

다. 아무리 진보라고 해도 폐쇄사회로 가게 되면 버림을 받게 되고 아무리 보수라고 하더라도 개방사회로 가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고 어느 쪽이 더 개방사회, 열린사회로 가는가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열린사회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열린사회로 간다는 것은 다원사회로 가는 것이다. 반세기쯤 지나게 되면 온 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 최초로 다원사회를 육성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민족과 여러 문화권이 들어와 하나를 만들어 큰 세계를 형성하였다. 멀리서 지켜보던 유럽에서도 저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원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EU를 만들었다. 우리도 미국과 같이 하나의 다원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다원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중국학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중국의 중화민족은 30%안팎이고 70%는 다민족들이다.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여 다원사회를 만든다. 이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다.

### 열린사회로 가는 것은 다원사회로 가는 것

불행하게도 일본과 우리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다원사회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하다. 일본의 문화와 경제가 앞서있어서 개방할 것 같지만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다원사회로 가서 다양한 문화가 혼합될 수 있는 하나의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제일 반대하는 사람은 고정관념과 선입관념에 빠진 사람이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인데 대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이제는 세계의 시대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면에서 제일 큰 불행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세대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 출세하느냐는 생각밖에 없다. 얼마 전에 안병욱 선생을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한때는 우리가 쓴 책을 젊은이들이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읽지 않는다. 우리가 쓴 책은 물과 같은 것인데 요즘 세대들은 물을 마시지 않고 콜라나 사이다를 마신다. 그래도 콜라나 사이다는 물로 만든 것이다. 가치관의 영구성, 그런 것이 꼭 있어야 한다."

젊을 때에는 의리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고 건설한다. 중년층에 속해 한창 일할 나이가 되면 신념이 있어야 한다. 해야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지성인들은 가치판단의 혼란을 일으켜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역사는 건설되지 않는다.

신진국을 보면 대화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대화를 해서 객관적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한다. 미국 사람들에게 "너희 나라 헌법은 2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그대로 그 헌법을 쓰고 있다. 프랑스는 200년 동안 제5공화국인데 언제 너희들은 제2공화국이 생기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는 제2공화국을 원하지 않는다. 좋은 점은 살려주고 나쁜 점은 제거하면 되지 제2공화국을 왜 만드냐."고 말한다. 캐나다에 가서 농사꾼을 만나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헌법을 일곱 번이나 고쳤는데 너희 나라 헌법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면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모두 사회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하고 개선해 나가는 경험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합리주의 사회는 400~500년 전부터 뿌리가 내린 것이지만 조금 다르다. 토론해 보고 이해가 되면 바꾸어 가자고 한다. 그러나 혁명이 생겼다. 영국은 왕실이 남아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없어졌다. 150년 전 또 하나의 사회갈등 문제 해결로 마르크스주의가 나왔다. 마르크스주의는 투쟁에서 혁명으로 간다. 싸워서 이겨서 혁명을 일으키면 된다. 우리 사회 속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에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교육받고 경험주의 습관을 받아들인 사람은 대화하자고 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두고 다른 얘기 다 들어 봐서 최선을 택해보자고 한다. 프랑스나 독일 계통의 사고방식을 교육받은 사람은 토론하자고 한다. 이기면 따라가고 지면 양보하자고 한다.



대화라는 것은 예방하는 것이다. 토론해서 개혁으로 가자는 것을 주사를 맞자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투쟁해서 혁명하자는 것이다. 뭐든지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없애고 우리가 이기면 정의가 되니까 거기로 가자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러면 조용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경험주의 전통을 받은 사람은 조용하다.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도 해결하면 좋다. 일부에서는 토론을 해서 바꾸자고 한다. 일부에서는 무조건 투쟁하자고 한다. 그러면 어떤 유형의 사회가 성공했는가.

**개혁의 도덕성과 이념성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대화해서 개선해 가는 사회가 성공하였다. 투쟁해서 혁명으로 가는 사회는 다 문 닫았다.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서 투쟁해서 혁명으로 가려는 마르크스주의, 토론에서 개혁으로 가자는 그 중간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개혁은 우리가 해야 하고 너희들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도덕성과 개혁의 이념성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도덕성은 영구한 것이지만 개혁의 이념성은 때가 되면 없어진다. 정치이념은 영원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개혁의 도덕성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일부에서는 개혁의 이념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개혁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지만 도덕성과 이념성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도덕성을 얘기할 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목적권'이다. 모든 종교가 그것 때문에 있다. 모든 도덕과 윤리가 그것 때문에 있다. 이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기업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데 공헌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에는 누가 역사를 건설하는지 찾아만 다녔는데 그게 잘못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건설해야 하고 나 자신이 건설해야 한다. 지식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하나의 집단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30년이 지난 후에는 존경받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새 출발을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 역사 건설에 참여하여 역사의 주역이 되고 역사의 중심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모두가 가져야 한다. **人間**



사진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원장

# 인류의 건강을 위한 콩 연구가의 고집있는 신념

정재원 (주)정·식품 명예회장

"대두(大豆)는 다른 곡물과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잘 맞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75%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에게는 유당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두유가 아주 적절한 식품이죠."

콩이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국내외 학계 발표가 이어지면서 콩을 원료로 한 제품이 21세기 건강식품으로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일제시대 소아과 의사로 일하다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대체 유액 연구에 몰두한 결과 '베지밀'을 개발한 정식품의 정재원 명예회장은 경영자라기 보다는 평생 콩 연구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콩 연구가이다. 한편 1973년 정·식품을 설립해 30년 넘게 두유의 우수성을 설파해온 정 명예회장의 고집에 가까운 신념은 90에 이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양학 연구로 밤을 지새울 만큼 식을 줄 모른다. 여기에 하루 세 팩씩 꾸준히 먹는 두유 덕분에 건강이 좋아졌다는 정 명예회장은 몸소 두유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기도 하다.

그 동안의 경험에서 터득한 건강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인류의 건강이 세계평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는 정재원 명예회장을 만나 평생을 두유와 함께한 '베지밀 이야기'와 그만의 신념에 대한 진솔한 인생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정재원 (주)정·식품 명예회장

1917년 생 / 1937년 의사검정고시 합격 / 서울대병원 소아과 근무 / 수도의과대학(현 고려대학병원) 박사과정 수료 / 英 런던대 소아과대학원 전기코스 수료 / 日 동경 소화의과대학 박사 / 1965년 정·식품 연구소 개설, 순식물성유(두유) 연구 시작 /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 (재)정·건강관리소 이사장 / 1973년 (주)정·식품 설립, 회장 / (재)혜춘장학회 이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근황부터 들려주시죠.**

제 나이 벌써 90을 바라보고 있지만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공 연구와 건강관련 공부 등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직 소망하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을 통하여 인류건강을 호전시키는 것과 인류의 사고방향을 진선미(眞善美)로 인도하여 세계평화가 자연스럽게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정·식품이라는 회사명보다 '베지밀'이란 이름이 더 친숙하게 들리는데요. 두유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베지밀은 'vegetable'과 'milk'의 합성어로 '식물성 밀크(유액)'라는 뜻입니다. 1937년 제가 소아과 의사로 있었을 때, 원인 모를 설사병을 앓고 있는 아기가 심하게 쇠약하여 영양실조증으로 사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내외를 다니며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봤으나 별 방도가 없더군요. 그러다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국제소아과학회에 참석하면서 우리나라 의학이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음을 깨닫고 1960년 영국 런던 의과대학에서 3년 반 동안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 UC medical center에서 소아 알러지를 공부했어요. 그러던 중 Nelson소아과 텍스트북 제 8개정판이 출판되었는데, 이 책에서 처음으로 유당불내증이라는 병명이 알려져 모유와 우유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당 성분으로 인해 이러한 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당 성분이 없는 대용 유액을 연구하던 중 콩에는 단백질 40%, 지방 20%, 탄수화물 35%로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유당 성분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이 점에 착안하여 한국에서 콩국을 맛있게 먹던 생각이 들어 1965년 귀국하여 두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정·식품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서는 의학박사 입장에서 두유제품을 개발하셨는데 회사 설립이라는 단계까지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업 당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유학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병원 한 귀퉁이에다 콩의 영양소 분석을 위한 실험실을 설치하고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2년간의 지속적인 연구 끝에 베지밀 제품이 영양식품으로 손색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발명특허와 식품 판매 허가를 받아 유당불내증 어린이들에게 생명회복의 희망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내수공업 수준의 베지밀 제조 작업으로는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대량공급을 위해 신갈에 하루 100만병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그 후 10년 뒤에는 베지밀의 수요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청주에 하루 200만 본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두유 공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두유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완전식품으로 알고있는 우유와 비교한다면 어떤지 두유의**

**효능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대두(大豆)는 다른 곡물과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잘 맞는 영양소이며 고기보다도 훨씬 좋은 점이 많습니다. 대두에는 올리고당과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우유나 고기에는 섬유질이 전혀 없고 올리고당도 극미량이지요. 식이섬유는 변비나 만복감을 조절하며 결장암 예방, LDL(Low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 농도의 감소,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혈당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베지밀에는 함유되어 있는데, 우유나 유제품에는 없어요. 또한 우유에 있는 포화지방과 카제인단백질은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동맥경화증을 촉진시키는 반면 두유에 있는 불포화지방과 글로블린 단백질은 HDL(High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며, 노화과정을 저지하는 작용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나 황을 함유하는 아미노산(메치오닌)의 양이 많아서 유황성분이 소변으로 배설될 때는 칼슘을 동반하여 배설되기 때문에 뺏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유에는 칼슘의 함량은 다소 적지만 함황 아미노산인 메치오닌의 양이 적어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에 두유군이 효과가 좋았다는 임상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두유에 있는 이소플라본은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등 호르몬 부족 또는 과잉과 관련되어 있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 정·식품 청주공장 전경. 공장내에 있는 정 명예회장의 생활신념 표석



▶ 정·식품 중앙연구소 동물실험실에서



▶ 정·식품 중앙연구소 연구원들과 연구회의



▶ 국제콩심포지엄에 참석한 정재원 명예회장

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완전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유에는 베지밀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인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레시틴 등의 기능성 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요. 게다가 우유의 당성분 즉, 유당은 유당불내증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배내장, 허혈성 심질환, 난소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요.**

우리나라 인구의 75%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젖먹이들의 경우 유당 분해효소(락타아제)가 분비되며, 모유나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을 소화시켜 단당류인 글루코스(포도당)와 갈락토스로 분해하여 흡수합니다. 유당 분해효소 락타아제를 분비하는 세포가 선천적으로 발육되지 않은 채 출생한 경우를 선천성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0.5%~1% 정도 됩니다. 반면 이유기를 지나 유당 섭취가 전혀 없으면 장내 유당 분해효소세포가 노화, 탈락되어 유당불내증이 자연히 생기게 되는데 이를 후천적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소장 하부에서 장내 미생물이 유당을 발효시켜 수소이온(H<sub>2</sub>)과 이산화탄소(CO<sub>2</sub>), 단쇄지방산 등의 부산물이 생산되어 피해를 입게 되죠. 단쇄지방산은 산성도가 강하여 장점막에 염증을 형성하고 설사, 복통, 복부팽만 등을 일으키

는데 장기간 이런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도 있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수소이온이 다량 생산되어 피를 통해 흡수되면 pH를 산성화하여 암, 고혈압, 심장병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1988년 미국 MIT에서는 성인의 유당불내증 분포를 발표했는데 백인에 비해 흑인과 동양인의 유당불내증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은 유당불내증 비율이 75~90%로 매우 높아 유당이 함유된 우유제품은 한국인에게 부적절한 사례가 많습니다. 자신이 유당불내증이 있는지도 모른 채 유당이 들어있는 우유를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유에는 유당 성분이 없어서 유당불내증 환자에게는 최적의 대체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유 소비량이 우유의 1/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1999년 대한 암예방학회지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우유소비량과 암 발생률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5년 우유 소비량은 5L,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0명으로 암 발생 전체 인구는 약 6,800명(당시 총인구 3천 4백만명을 기준으로 계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식탁이 서구화되어감에 따라 96년대에는 우유 소비량이 55L로 증가하였고, 암 발생률도 10만명당 170명으로 늘어 암 발생 전체 인구는 약 74,800명(당시 총인구 4천 4백만명을 기준으로 계산)이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유 소비가 11배나 늘어남에 따라 암 발생률은 8.5배 증가하였고, 암 발생 전체 인구수도 11배나 증가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따라서 유당이 들어있는 우유 음용량의 증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두유의 힘인가요. 구순을 바라보는 연세를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해 보이십니다. 건강비결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40대부터 당뇨를 앓기 시작하여 음식조절은 물론 인슐린 주사를 30년간이나 맞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60대에는 고혈압으로 고생을 했고, 80대에는 협심증이 심해지면서 좁아진 심장관상동맥혈관 여섯 군데에 'by pass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심혈관질환 예방에 좋은 아이소플라본이라는 기능성 물질이 콩을 원료로 한 베지밀에도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어 수술 이후에는 2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세 팩씩 베지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40여년간 조절되지 않았던 당뇨증세가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인슐린이나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식사조절의 고충에서도 벗어나게 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또한 심장수술을 하고 나면 심장질환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경우는 수술결과도 좋을뿐더러 수술 후 8년이 지난 현재 건강이 예전보다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세 팩 정도의 베지밀에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양의 이소플라본(100mg)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베지밀을 하루에 세 팩씩 먹고 있으며, 89세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골프를 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콩의 힘이 아닌가 생각해요. 건강이 좋아진 것은 물론 베지밀 덕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자세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서는 작년 5월, 연구원의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통해 '콩의 힘을 실패하시면서 '인류건강을 위해 이 몸을 바친다는 신념으로 여성도 그렇게 보내겠다'고 하실 만큼 '콩 연구가'로서 콩에 대한 신념이 강하신대요. 현재 진행중인 연구나 앞으로의 계획,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한 평소 인생관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들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콩의 3대 영양소 뿐만 아니라 기능성 성분인 아이소플라본, 트립신 인히비터, 사포닌, 레시틴, 섬유소, 올리고당 등이 새로 발견되어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들이 연구결과로 발표되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 30여년간 홀로 콩과 두유의 유익함을 주장하는 외로운 길을 걸어왔던 제가 이제는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많은 동료들 얻게 되었고, 건강식품인 두유를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얻은 소중한 건강관리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남은 여생을 바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을 위한 식품개발만이 세계적 식품회사로의 발돋움이자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인류의 건강이 세계평화로 이어질 것이라 소망하는 바입니다.

명예회장님께서서는 현재 '혜춘 장학회' 이사장으로도 재직하시면서 인재양성에 큰 뜻을 두고 계신대요. 회장님의 '인간 개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은 공부에 대한 한이 남기 마련이죠. 언제부터인가 가난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장학회를 발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다 1984년 혜춘(惠春)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초기의 장학회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대학 재학생을 위주로 자연과학이나 의학계통 학생들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총 2,000여명의 학생들에게 14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죠. 인재를 뽑아 그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바로 '인간개발'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을 콩 연구에 몰두해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텐데요. 기억에 남는 일이나 가장 보람된 순간을 떠올리신다면 언제입니까.

1967년 두유연구를 하던 시절에 유당불내증으로 고통받던 아기환자가 정·소아과에 내원한 적이 있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입

도 벌리지 못하는 아기에 게 가는 고무관을 이용하여 베지밀을 조금씩 넣어 주자 아기가 그것을 먹기 시작했고, 일주일 정도 후에는 아주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여년이 지난 어느 해, 그 아버지가 다 죽어 가는 아들을 살려주어 감사하며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 아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베지밀 덕분에 건강을 되찾아 현재 의학도의 길을 걷는 젊은 청년으로 훌쩍 자라났다니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람되었던 일은 1999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대두학술대회에서 두유와 콩 연구에 일생을 바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92년도에 인도 마이소아에서 열린 제3차 국제식품영양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이후 여섯 차례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것이 이 날의 영광을 안는 계기가 되었죠. 전세계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로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의 두유 연구의 위상을 세계에 떨쳤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명예회장님께서서는 저희 연구원의 강사로 참여하시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자본과 기술이 없는 한국에서 국가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1975년부터 한결같이 '인간개발'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온 인간개발연구원의 노력은 참으로 값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해 앞으로도 세계를 움직이는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명예회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 기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용을 쌓을 때 오는 것

마상곤 협운해운(주) 회장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용을 쌓으면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지난 3월 19일 회사 창립 29주년 기념 식장에서 임직원들에게 들려준 소회 중 한 구절이다. 현재에 충실해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 경영 일선에서 실제로 경험한 것을 일러준 것이다.

필자는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해운 전문인으로 출발하기 위해 20대 중반에 대기업 계열의 해운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 이 일을 천직으로 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덕분에 입사 10년 뒤인 30대 중반에 상무이사라는 자리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지극히 보수적이었던 회사 사정하고는 너무도 다른 특별 승진 케이스였다. 모든 것이 '오늘'에 충실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 느닷없는 외국 회사의 창업 제의

1976년 어느 날 스위스 굴지의 운송회사 FRACHT LTD의 중역이 나에게 창업을 제의해왔는데 여간 놀라지 않았다. 이 중역은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 우리나라 수출화물을 해상 루트가 아닌 시베리아 철송(TSR)으로 유럽까지 운송할 목적으로 한국 파트너를 찾던 중이었는데 회사를 창립하여 같이 해보자는 제의를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소련과 외교관계도 없었고 공산권 국가였으므로 우리 수출화물이 소련 철도를 경유한다는 것이 여간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 창업 제의에 선뜻 응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당시는 지금처럼 이러한 서비스업에 합자가 허용되지도 않았다. 여기에 나 자신은 30대 중반 나이에 상무이사직으로 너무나 만족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회사 창업은 전혀 고려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일은 내 평생에 부인을 통해 접술가와 상의해본 첫 번째 일이 되기도

했다. 결국 내가 우려하는 모든 것을 FRACHT LTD가 책임질 것이고 창업자금까지도 빌려주면서 권유하기에 그 말을 믿고 그 해 3월 협운해운(주)를 창업하게 되었다.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창업 이후 2년간 당시 우리나라 수출화물의 증가로 우려했던 일없이 꽤 많은 이익을 냈는데, 7명의 창업멤버가 작은 조직이지만 규모에 비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었다. 더 이상 욕심도 없이 거기에 만족하고 오늘에만 충실했다. 그러던 중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노르웨이 굴지의 선주 Wilhelmsen Lines(Willine)의 한국대리점을 맡게 되었다. 이는 필자가 직장생활 때 알았던 그 회사의 중역분과 3년 전부터 그 LINE의 한국 신규취항을 권유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해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는 중동 건설 붐으로 상당량의



건설장비와 자재가 중등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있게 화물 집하를 약속했던 것이었는데 그 사실을 기억했다가 3년 후에 기회를 준 것이다. 물론 오랜 역사를 가진 대형선사가 창립 2년밖에 안된 신설 회사를 대리점으로 선정하는데는 위험요소가 많았으리라. 그러나 그 중역의 말처럼 회사 역사나 규모보다 한 사람의 역량과 신용을 믿고 자기 회사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예외적인 일을 전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결정을 했으니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이 사업은 한창차에 4천톤 선적을 약속했다가 실제로는 5천톤 이상 추가 선복을 요청할 정도로 영입이 활성화되었다. 물론 선주도 대만족했지만 우리 회사는 이를 계기로 해운대리점사로서 급성장하게 되었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성과에 어느 재벌 총수도 부럽지 않다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뛰었다.

오늘의 우리 회사를 있게 한 계기도 그 후에 유치한 미국의 최대 산림 목재 회사인 Weyerhaeuser사의 자회사인 Westwood Shipping Lines, 세계 최대 화학물질 운반선인 노르웨이의 Stolt-Nielsen사, 세계 최대 해운대리점사인 노르웨이의 Barwil사 그리고 노르웨이의 최대 벌크선사인 Gearbulk사 등도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의 역량과 신용을 믿고 해운대리점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용을 쌓아야 기회가 온다는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자를 헐뜯거나 비방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든 사실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다. 우리 해운업계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왕왕남을 제치고 가로채는 일이 있긴 하지만 자신만 충실하다면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다.

**서비스업은 다양해야 위험 적어**

물류업은 다양하다.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박의 종류도 여러 가지 형태이다. 그래서 해운대리점업이나 복합운송업도 그에 따른 화물 종류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는 육·해·공 복합운송업과 연관성있는 특수차량 운송업이나 물류창고업, 위험물 액체 특수수송용 컨테이너 세척공장 등에 투자하여 자회사가 늘어나 현재 5개의 계열사가 상호 시너지효과로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어 어느 회사보다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 또한 우리 회사는 모든 종류의 물류를 비롯해 크루즈 여객선까지 취급하고 있기에 단일 메뉴만 취급하는 음식점이 아닌 다양한 메뉴가 있는 대중음식점으로 고객에게 편리하다. 한편 8년 전에 투자 건립한 4,800평 규모의 양산 물류창고는 몇 년 동안 얻었던 누적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투자하여 무차입으로 금융 부담없는 시설로써 큰 보람으로 여긴다.

**자기 분수에 맞는 행복의 추구**

사람의 욕심은 무한한 것. 욕심을 절제하고 항상 오늘에 충실하면서



▶ 마상곤 회장의 회의주재 모습



▶ 임직원들과의 모임에서



▶ 1999년 ISO 9002 인증서수여식

나의 분수에 맞는 행복을 추구할 때, 그것이 가장 보람있는 삶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나의 생활신조이기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식구들과 임직원들께도 강조하곤 한다.

위를 쳐다보면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 아래를 보면서 만족하고, 자기분수에 맞는 삶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하고, 오늘에 충실해야 내일 기회가 온다는 것이 필자의 체험에서 얻은 경영이야기의 한 토막이기도 하다. (人間)

**마상곤 협운해운(주) 회장**

1940년 생 / 한국해양대 항해과 졸업 / 성장해운(주), 협성선박(주), 영창해운(주) 상무이사 / 1976년 협운해운(주) 설립 / 한국 복합운송주선업협회 부회장 / 한국 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회장 /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장 / 현 (주)신한상운 회장, 바월협운에이전시(주) 회장, 美 GEORGIA 항만국 한국대표, (주)협운인터내셔널 회장

# 너무 늦지 않은 박하사탕식 건강관리

김동일 동국대 한의과대 교수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2일 문을 연 '사람이 자치대학'은 정보화·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개발과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도모코자 대전 서구에서 목적으로 출발한 지방자치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16회의 강연이 열려 현재 제3기 강연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자치대학'은 경제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경륜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구민의 의식변화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의 능률화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4월 22일 "너무 늦지 않은 박하사탕식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3기 제3회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제3기 제3회 사람이 자치대학 4월 22일(금)



제가 오늘과 같은 강연 제목을 잡은 이유는 '박하사탕'이라는 우리나라 영화처럼 우리가 질병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와 한참 건강했던 20대를 비교해 가면서 각 연령층에 맞는 건강문제를 설명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너무 늦지 않게 건강문제를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강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건강'이란 말의 정의와 '웰빙'이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과 내가 속한 집단 속에서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상태여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웰빙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와 건강한 상태가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위 자체를 웰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인간의 두 가지 유형과 질병

인간 유형과 질병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이나 어제보다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미래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오늘보다는 어제, 잘 나갈 때를 생각하는 과거결과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혈압이 잘 오르거나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관절이 잘 아프고 의욕이 많은 만큼 식욕도 강하지요. 그래서 비만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고지혈증도 잘 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항진증도 많이 옵니다. 반면 과거의 결과에 연연하는 분들은 우울하거나 건강염려증에 잘 걸리고,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설사를 하거나 설사와 변비가 교대되고, 배에 가스가 차는 과민성 장증후군 등에 잘 걸리게 되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받아서 식욕이 떨어지고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추위를 잘 탐니다.

여기 여자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통 여자들 생리가 끊어지는 시기가 49세입니다. 그 다음 초경을 14세쯤 했을 겁니다. 여자의 인생은 7 단위로 움직이는데 14세에 초경하고 21세에 아주 예뻐지죠. 28세에 성숙해지고 35세가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늙게 되고 42세가 되면 빠른 분들은 갱년기 증상을 보이죠. '사다리'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갱년기는 어찌면 사다리를 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갱년기를 클라이막테릭(Climacteric)이라고 합니다. '클라이맥스'라는 말과 같은 어원인데, 그 말의 어원은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내가 타는 사다리는 높은 목표에 올라가는 좋은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42세 이후로 여성들은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기 직전이 기 때문에 건강문제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남자는 64세를 갱년기의 시기로 봅니다. 대체로 남성들은 8의 순환으로 가는데 56세가 되면

건강문제와 노후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년기는 위험한 사다리를 타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중요한 시기가 되면 소변을 자주 흘립니다. 재채기하거나 웃다가 찢끔 나오게 됩니다. 여행가실 때나 사회생활 할 때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암'이라고까지 합니다. 여자들이 요실금으로 고민할 때 남자들은 전립선비대가 문제입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변의 문제가 중년 이후의 남자, 여자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몸이 차가워집니다. 또 피부에 주름이 지고 골다공증이 오는데 골다공증은 남자보다 여자가 잘 옵니다. 그리고 월경이 빨리 끊어지는 분, 위장병을 겪으신 분, 관절염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드신 분,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셨던 분, 갑상선에 병이 있는 분들이 잘 오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 보다 키가 좀 작으시고, 마르신 분들 그리고 젊으셨을 때 고운 피부를 가지셨던 분들은 골다공증이 잘 옵니다.

### 골다공증 예방은 운동이 중요

골다공증에 대해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은 생리가 끝난 뒤 3년 동안 급속하게 골다공증이 심해집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D를 합성해 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햇빛이 잘 드는 야외에서 팔다리를 흔들면서 걷거나 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이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가끔 넘어져서 어디가 부러졌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넘어지면 손목이 잘 부러지는데 이 때 골다공증이 옵니다. 일단 여성들은 월경이 끊어지고 3년 정도가 지났으면 넘어졌을 때 무조건 아픈 곳에 X-ray를 찍어 보십시오. 남성들은 65세 이상 되어서 넘어지면 일단 X-ray를 찍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골다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음료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인(燐)도 많이 섭취하면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또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 많은 나쁜 문제를 일으키는데, 각종 암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중풍 등을 유발하지만 골다공증에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늦게 담배를 배우시는 주부들이 많은데 흡연하시면 안됩니다. 빨리 늙습니다.

게다가 골다공증에 의한 고관절 골절의 경우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매우 복잡하고 그 아래로 큰 혈관이 지나갑니다. 대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면서 그 혈관을 건드리게 되면 출혈이 많아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면 곳곳하시던 분의 허리가 휘어지게 됩니다. 허리가 휘어지게 되면 허파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숨쉬기 곤란해지고 활동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골다공증이 뼈만 잘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키를 줄어드게 하고 소화기관을 압박해서 숨이 차거나 소화장애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젊으셨을 때부터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허리건강을 위해 신발과 의자는 좋은 것을...

그 다음에 허리 아프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허리가 안 아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환자도 많지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의 대부분은 디스크가 아니고 근육통입니다.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허리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 또 하나는 배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하면 항상 그 원인을 뒤쪽만 생각하시는데 앞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의 근육이 약해져도 허리가 아플 수 있고, 허리 근육이 긴장을 하거나 약해도 아플 수 있습니다. 허리 근육은 큰 근육과 작은 근육 두 개가 있는데 현대인들이 혹사당하는 근육은 큰 근육이 아니라 작은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작은 근육에 무리가 가게 되면 큰 근육이 미세한 근육을 잡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픈 것은 디스크도 있지만 작은 근육과 큰 근육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주를 쉬거나 침 치료, 물리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자기 경제 능력에 맞게 구입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은 없지만 저는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늘 신발 벗는 것과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을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발은 조금 좋은 거 사십시오. 대신 굽은 낮은 것으로요. 신발이 허리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부들은 집에 가서 싱크대 높이가 편안가를 보십시오. 한국사람들의 키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높이는 크게 안 높아 졌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높이가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설거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싱크대 높이를 높이십시오. 그 다음 의자도 상당히 중요한데, 등이 딱 밀착되고 이왕이면 바퀴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발과 의자는 허리의 건강을 위해서 호사를 부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중풍 예방은 식습관 조절과 유산소 운동으로

심각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풍 이야기인데요. 중풍이 참 걱정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집안에 중풍 환자 한 명이 있게 되면 한 달 간병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중풍이나 암이라든지 만성적인 질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참 큼니다. 하여간 이 중풍이 생기면 가족을 붕괴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지혈증에 안 걸리셔야 합니다. 술을 많이 드시거나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피가 탁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고지혈증이 옵니다. 그래서 간혹 채소만 먹겠다는 분이 계신데 고기를 안 먹으면 저지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관리 잘하시면서 야채와 육류를 조화롭게 드시고 짜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팔다리 힘차게 흔들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저는 댄스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2등으로 뚱뚱한 나라인데, 30%만 덜 드시면 살빠지고 당뇨도

안 옵니다. 그러면 확실히 중풍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부에 지방이 1kg이 늘어나게 되면 혈관의 길이가 80km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술은 기분 내는 한잔 정도는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흡연!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 치매와 심장질환

다음으로 치매가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 오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알츠하이머 걸릴 연령들을 지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올 수 있는 치매는 거의 노인성 치매입니다. 노인성 치매는 중풍이나 뇌동맥경화증 때문에 뇌 조직이 기능을 잃어버려서 오는 형태의 치매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길은 동맥경화와 중풍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머리를 쓸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교우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심장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아플 때는 남자들 벡타이 매는 부분, 벡타이가 분포되어있는 부위가 압박됩니다. 그래서 가슴 한 가운데가 딱 눌려지는 것처럼 아파요. 금방 숨이 멎을 것 같고 꼭 이렇게 위로 뻗쳐오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슴 한 가운데가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했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딱 누르듯이 아프면 서둘러 병원에 가서 심장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심장 마비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사망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심장이 아픈 것은 왼쪽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가슴 한 가운데가 뒹구 누르듯이 아픈 그런 형태입니다.

### 변화와 순리대로 사는 것이 건강과 웰빙의 삶

손을 딱 붙여 보십시오. 그리고 비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왜 따뜻하죠? 이 순간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내살 내가 비비는 것도 좋은데 좋아하는 사람 살갓을 비비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몸의 조화, 내 가족과의 조화, 타인과의 조화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물가는 대로 사시고, 생각이 있어야 하고,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물 흐르는 대로 가되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시는 것이 건강한 삶이고 웰빙의 삶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변화와 순리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人間)



김동일 교수

1967년 생 / 동국대 한의과대 졸업 / 동국대 한의학 박사 / 동국대 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전문의, 부인·소아과장 / 우석대 김제한방병원장 / 우석대 진주한방병원 부인·소아과장 / 우석대 한의과대 교수 / 한의사국가고시 문항개발 및 정리위원 / 한방부인과 전문의시험 문항개발 및 출제위원 / 현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부인과장, 대한한방부인과학회 학술이사





# 정신경제가 물질경제를 선도하는 시대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사**람은 누구나 6가지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Know-How, 둘째는 Energy, 셋째는 Time, 넷째는 Imagination, 다섯째는 Concentration, 여섯째는 Determination으로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정신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물질의 사용을 근거로 한 육체적인 삶이 있고, 마음을 쓰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정신적인 삶이 있다. 육체적인 삶을 튼튼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물질자산'이라 한다면 풍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무형자산' 즉, 정신적 영역일 것이다.

물질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큰 부자인가. 정신적 자본 즉, 무형자본을 많이 가진 자가 더 큰 부자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공간에는 헤아릴 수 없는 물질이 있다. 인구가 많아져서 지구가 초만원이 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이 팽배해지면서 지구는 개발의 피해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문제는 개발의 결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는 물질경제 성장의 추구보다는 아무리 개발해도 환경파괴와 자원고갈과는 관계가 없는 무형자산 즉, 무형의 인간자산을 개발하는 정신경제(제2의 경제)야말로 문화경제를 성장시켜감으로써 물질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평화롭고 풍요한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경제가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 이상의 성장예측은 빗나가고 3%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정부가 불황을 타계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산집행을 서둘러 이미 66조원의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침체는 꿈쩍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정부의 경기회복정책이 이미 먹혀들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정부가 재정에 연연하지 말고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시점이다."라고 지적하는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 한국 정부도 우리의 절실한 현실을 외면하는 듯 무엇인가 리더십의 결함을 보이고 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정부는 국민적인 각성과 국가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 불리는 새로운

경제성장국들이 왕성한 성장력을 보이면서 세계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은 우리나라를 국민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우러러보게 하고 존경심을 갖게 한다. 룰라 대통령은 노조를 기반으로 당선된 후 좌파정권 이미지를 씻고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주의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그 결과 파산 직전의 브라질 경제를 회생의 토대 위에 올려놓아 지난해 5.2%의 경제성장률과 수출 965억불을 달성해 경상수지 흑자전환, 실업률 급락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취임 약 2년 동안 40여개국을 방문하고, 특히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지도자들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고 반성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최근 세계 마케팅 석학들이 고려대 창학 100주년 기념 마케팅국제심포지움에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며 규칙과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지적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기업이 10%도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술이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정과 창조성이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버드비즈니스리뷰'가 금년 4월에 CEO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기존의 CEO들이 3가지 경영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45%는 Rule-based 경영방식, 40%는 Goal-based 경영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고, 10%만이 Creation-based 경영방식 즉, 기업경영의 문제점을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창조적 경영방식으로 경영을 리드해가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GE의 CEO인 제프리 이멜트 회장은 핵심적 기업가치는 덕(德, Virtue)이라 보고 지식과 정보를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상상력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는 상상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열정, 상상력, 창조력 등은 모두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무형자산으로 아무리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인간자산이다. Know-How, Energy, Time, Imagination, Concentration, Determination은 제 아무리 많



이 개발해서 쓴다해도 고갈되지 않는 창조적 정신자산이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창조적 인간자산을 마음껏 개발해서 개인의 인간성장과 기업 또는 국가의 성장원동력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人間**



# 나는 누구인가? 자아 존재를 의식하고 사는가?

노혜진 줄리엣카운셀링센터 원장

기원전 6세기 최초의 철학자로 꼽히는 탈레스는 제자에게 세계의 근원을 물어보았다. 처음으로 세계지도와 천문도를 만든 그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는 불을 중심으로 한 우주의 진화론으로 세계를 해석했다. 모든 것은 공기에서 비롯되었으며 물, 불, 바람, 흙 4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한 말은 기독교의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흙을 빚어 숨을 불어넣었다는 신화적인 의미도 있다.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地, 水, 火, 風이라는 의미를 준다. 인간의 모든 것은 물, 불, 바람, 흙으로 흩어지며 그것은 곧 자연이라고 하였다.

## 인간의 녀과 혼은 진리 앞에 있다

그러한 즉 존재하는 순간, 찰나, 공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라지는 인간의 녀과 혼은 공간과 시간에 결코 비킬 수 없는 진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나의 의식이나 삶은 결코 물질적이지 만 물질로는 충족되지 않는 가공할 힘을 내재하고 있다. 내가 누구인

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의 실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철학적인 사추를 토해내지 않으면 고갈된 느낌이다.

현대는 고도의 물질과 문명의 발달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마치 클라이맥스의 정점처럼 더 이상 탐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현대는 오히려 가중된 정신적인 갈등과 번민과 고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신은 문명의 이기만큼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까닭이다.

나는 일본을 자주 가게 된다. 일본에서는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으며 때로 군중 속에 고독을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종종 있다. 낯선 도시, 어눌한 말투, 처음 묵는 호텔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인생은 결국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든다. 무섭고 두려운 생각과 고요해지는 반대급부적인 생각이 교차하기도 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말한다. 그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걷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때로 화가 나서 제어가 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감정



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앞에서 죽음이라는 진리에 봉착되면 나는 존재하는가?"

애착을 가진 모든 사물과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고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 누구도 나를 인지하지 못할 것이며, 한 줌의 물, 불, 바람, 흙으로 사라지게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도 산 자들의 기억에 그다지 오래 남지 않을 것이며, 나의 기록이나 역사나 존재 자체가 묻혀지는 순간들이 올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 절절한 마음과 작은 생각과 놓아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탐내는 마음과 화를 내는 마음은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 인간은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 나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겨내야

인간이란 그토록 나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자동차라는 문명에 깔려 죽기도 하고 천재지변에 속수무책이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누구도 이길 재간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사는 이 순간에 의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물, 불, 바람, 흙 이 4가지 원소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죽는다는 의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나? 주변의 모든 이들은 다 죽지만 자신만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자만심과 기대감은 진리 앞에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죽음과 자신을 다시 내려다 볼 수 있는 자만이 인생을 진실로 사는 것이다. 때로 처절한 고통이나 절구나 억울함도 당할 것이며, 인간의 고통도 겪게 될 것이며, 세상의 다른 면에서 갈등도 겪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은 사는 동안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또한 내가 누구인가? 엄격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세상은 천차만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또한 의식의 기준이 다 다르고 인격의 격차도 다를 것이며, 사람다운 성품을 가진 자들도 그다지 흔하지 않다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다. 그러한 사회적인 병리나 모순을 제외하더라도 인간다운 그 시발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성실한 자. 마음이 맑은 자. 남을 돌보는 자. 약자를 이해하는 자. 긍정적인 발상을 가진 자들,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죽음을 아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남을 해치지 않는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라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놀이감을 두고 가야하는 이치를 알게 될 것이다. 명예, 지위, 권력, 돈, 가족, 사랑, 섹스, 집, 자동차, 친구, 자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 떠날 때는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아무리 가져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地, 水, 火, 風으로 흩어지는 나의 육신으

로는 가능하지 않다.

조금 더 일찍 놀이감이 허구라는 사실을 현실에서 깨우치면 사는 동안 진정한 마음, 자신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편안해 질 것이다.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무엇'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으며, 그저 놀이감을 잘 활용해서 사는 동안 즐겁고 신나고 편안해지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 세상이라는 놀이터의 놀이감은 허구일 뿐

천상병의 시에서도 이 세상을 소풍이라고 하였다. 시구에 '소풍 끝나는 날, 잘 놀았다고 하지 않았던가. 또한 사는 동안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마라. 행복은 불행과 늘 짝을 이루고 다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행복, 불행 등 상대적인 우열을 결정할 요인들을 바라다 보면 늘 사람은 불편해지게 되어있다.

"엄습하는 저녁과 고요 속에 잠시 눈을 감고 정적을 사랑한다. 그 안에는 오직 나밖에 없다. 누구도 나를 대신하지 않으며 나의 마음을 가늠할 그 무엇도 없다. 그러므로 고요한 내가 나를 의식하고 숨소리조차 관찰 수 있는 평정한 상태로 나를 본다."

존재적인 가치와 공존적인 사실을 의식하고 실존하는 나를 의식하며 시간이 사라져 버린 이후 나의 삶을 추론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자신 속의 자신을 찾고 진리를 인지하라

진정한 것은 참,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것은 불행하거나 행복하지 않는다. 진정한 것은 늘 고요하다. 언제나 평온하다. 그러므로 바깥의 모순과 병폐와 괴리감에서 자신을 찾으려하지 말며 자신 속의 자신을 찾기를 바란다. 물, 불, 바람, 흙으로 흩어질 영향과 닮아. 세상 살면서 애달프다 하지 말며 슬프다 하지 말며 물질이 없다 불평하지 말며 삶이 어렵다고 투정하지 말자. 놀이감에 너무 빠져서 진정한 자연과 심오한 우주를 잊지 말며 죽음을 향한 질주를 멈출 수 없다는 진리를 인지하자.

이제 내가 하고픈 말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人間



노혜진 원장

동경대 철학과 수료 / 연세대 대학원 교환학생 수료 / 보스턴대 철학 박사 / 한국 최초의 성격카운슬러 / 노혜진 성격진단프로그램 개발 / KBS, MBC, SBS, EBS 外 다수 TV특강 / 광운대 경영대학원 강사 / 줄리엣카운셀링센터 상담사례 5000건 / 저서 - 성격 좋은 아이는 부모가 만든다, 성격 좋은 남자는 여자가 만든다, 개를 좋아하는 시어머니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며느리

# 회원&연구원 소식

## ■ 회원소식

- **강권석 기업은행장은** 지난달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명취원'을 비롯해 불우아동 보호시설인 라파엘의 집, 삼동소년촌, 두발로 어린이집, 성애원, 한국 수양부모협회와 불우노인 양로시설인 잔주강의 집을 방문, 성금을 전달하였다.
- **교보문고(대표 권경현)**는 지난달 4일 안양시 만안구 'CGV 일반가' 빌딩 5~6층에 경인지역 최대 규모인 교보문고 안양점을 오픈하였다.
- **심갑보 삼익LMS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KTV(한국정책방송) <특별한 강의>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방안(삼익 LMS 사례를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특강하였으며 방송되었다.
- **사단법인 서울 그랜드 오페라단(이사장 이경애)**은 지난달 27일 오후6시 BEST HOUSE에서 '생동하는 5월의 아름다운 밤, 우아한 친교'란 테마로 클래식 콘서트 행사를 가졌다.
- **삼성석유화학(사장 허태학)**은 회사 창립 31주년을 맞아 지난달 16일 충남 서산사업장에 퇴직임원을 초청, '홈coming 데이(Home coming day)'를 진행하였다. 한편 퇴직 임원들은 이날 공원처럼 조성된 서산사업장의 환경 및 시설을 둘러보고 허태학 사장과 참석 임직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김창송 성원교역 회장(前 한국CBMC 회장)**은 한국CBMC 임기 2년 동안 국내외를 순방하면서 몸소 느낀 것과 전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 <귀(貴)히 쓰이는 질그릇>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발간하고 지난 5월 10일 63빌딩에서 출판기념회 가졌다.
- **수성 김정배 사장은** 지난 5월 17일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정배 사장은 30년간 산업용 운반기기인 전동지게차의 품질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로 국제수준까지 높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을 하게 되었다.
- **최문수 BY 성형외과 원장은** 지난달 중국 곤명시에 서울의학 성형미용의원을 개원하였다.
- **송병순 회장은** 지난달 (주)AREKO를 설립하였다. (주)AFEKO는 전문 건설회사로 손상된 아스팔트 도로의 표층을 가열, 절삭하여 발생하는 폐 아스콘을 버리지 않고, 재생첨가제와 배합설계에 의한 아스콘을 혼합하여 폐 아스콘 전량을 재활용하여 포설하는 공법으로 건설을 한다고 밝혔다.
- **주얼루시 하경화 사장은** 지난 5월 방이동에 주얼리 전문점인 2호점 TIARA를 오픈 하였다.

## 주소 이전 및 연락처 변경안내

- **이두호(전 한국자금중개(주) 사장)** 회원의 연락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회사명 : 한국자금중개(주) 금융시장발전연구소
  - 주 소 : 서울 마포구 공덕동461번지 신영지웰빌딩 A-1506
  - 전 화 : 02-2123-9978
  - 이메일 : speedydh1@kmbco.com
- **남기열(전 우리증권 부장)** 회원의 연락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회사명 : 동부증권 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다동 103 동부빌딩 3층
  - 전 화 : 02-778-0994
  - 이메일 : ngy5858@hanmail.net



■ 신규회원



**김남윤** 에이스부동산컨설팅 부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23 남서울상가 1층 76-2  
 · 전 화 : 02-562-1162  
 · 팩 스 : 02-3452-1810  
 · 추천인 : 김석기 관동실업 회장



**정태원**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28 동신빌딩 8층  
 · 전 화 : 02-501-9400  
 · 팩 스 : 02-501-9909  
 · 업 종 : 변호사 사무실  
 · 추천인 : 이병혜 명지대 교수/KBS 시사전문 앵커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민찬** 풍수지리 신안계 물형학 연구소 원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551-11번지  
 · 전 화 : 02-777-4447  
 · 팩 스 : 02-409-9979  
 · 업 종 : 인간, 기업, 운명 및 컨설팅  
 · 홈페이지 : www.poongsoo.co.kr  
 · 추천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일삼 정우철 사장**의 차남 동원군의 결혼식이 지난 5월 21일 신라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연락처 : 02-756-1313 )

· **조경덕 협운인터내셔널 사장**의 장남 종환군의 결혼식이 지난 5월 29일 공향터미널에서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이봉수** 코아21 대표이사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7-7 대성빌딩 2층  
 · 전 화 : 02-541-5433  
 · 팩 스 : 02-541-7295  
 · 추천인 : 장재완 한국청년벤처기업협회 회장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이영렬** (주)삼기 회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79 효정상가 2층  
 · 전 화 : 02-2226-7775  
 · 팩 스 : 02-445-7789  
 · 업 종 : 건설업 외  
 · 홈페이지 : www.samki.com  
 · 추천인 : 최석태 (주)네스포디아 부회장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전상백 대표이사	(6월 1일)
世界平和 超種敎 超國家聯合	전선희 평화대사	(6월 1일)
(주)태창가족	김서기 대표이사사장	(6월 1일)
신용보증기금	배영식 이사장	(6월 1일)
CJ시스템즈	김일환 대표이사	(6월 1일)
금융결제원	윤귀섭 상임고문	(6월 2일)
기네스리그룹	이왕열 회장	(6월 5일)
동남갈포공업(주)	서병식 회장	(6월 5일)
(주)대양파이프	곽창선 사장	(6월 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해균 이사장	(6월 7일)
(주)테크노랜드	서정환 사장	(6월 13일)
(주)정림건축	김정철 명예회장	(6월 17일)
(주)뉴스타디지털	박용택 사장	(6월 20일)
(주)금천코퍼레이션	강연구 사장	(6월 24일)
유풍무역	조재우 대표이사	(6월 24일)
대성광업개발(주)	김영돈 부사장	(6월 25일)
(주)소예	이상숙 회장	(6월 27일)



**정문호** 동국산업 사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중구 다동 92번지 다동빌딩  
 · 전 화 : 02-316-7506  
 · 팩 스 : 02-316-7895  
 · 업 종 : 철강산업 외  
 · 홈페이지 : www.dkis.co.kr  
 · 추천인 : 송언기 태창플랜트 회장

# 회원&연구원 소식

## ■ 연구원소식

### • 한국·몽골 협력관계 위한 간담회



지난 5월 3일(화) 본원은 한국과 몽골의 협력관계를 위한 양국 관계자들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와 서울시간의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한 '울란바토르의 날' 행사에 참석한 몽골 정부 관계자 및 기업가 7명이 본원 회원들과의 상호 교류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몽골어와 한국어로 발행되고 있는 <위대한 민족>의 발행인인 나차도르츠 첸드마씨를 비롯해 체덴발 축졸마 울란바토르시 수흐바토르 구역 구청장 등 일행은 몽골이 한국과 상호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장만기 본원 회장을 비롯해 김만기 SH공사 감사, 황석희 법무법인 우현 상임고문 등이 참석하였다.

### • 장만기 회장 한국리더십센터 강연

장만기 본원 회장은 5월 26일(목) 오전 7시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리더십센터 주최 제48차 7H CEO포럼에서 "CEO가 성공하려면 사람을 얻어라"-To Get The Company Right You Need to Set the People Right-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 소모임소식



YCF(회장 김상래 / (주)성도GL 사장) 5월 정기모임은 운치 있는 안국동의 민가 다현이라는 곳의 정원에서 와인과 훌륭한 음식으로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조천제 블랜차드컨설팅(주) 대표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주제로 다양한 영상과 슬라이드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후배 경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오랜만에 참석하신 회원들께서도 그간의 근황과 정보를 교환하시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중에는 비정기

모임으로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YCF회원께서는 미리 스케줄을 체크하시어 전원 참석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 명동지사 BIG DREAM & SUCCESS 소식

#### 제7차 EPM(시간관리/자기경영)과정 개강

- 일 시 : 5월 27일(금)
- 장 소 : 명동지사 교육장

#### 제20차 정기 강연회 - "지식경영 변화지도자의 리더십"

- 연 사 : 강석진 GE Korea 명예회장
- 일 시 : 6월 13일(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명동지사 교육장

#### 제10차 정기 등산회 안내

- 가는곳 : 북한산 북악파크호텔 앞
- 일 시 : 6월 26일(일) 오전 8시 30분

## ■ LMI 교육프로그램

### 1.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 내용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계획 프로세스와 실전 훈련 과정임.
- 기간 : 16주간, 주1회 일정요일, 2시간

### 2.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EPP)

- 내용 : 조직생활의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임.  
※석세스플래너 포함
- 기간 : 9주간, 주1회 일정요일, 3시간

### 3. 성공하는 자기경영 과정 (EPM)

- 내용 :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따름으로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과정임.
- 기간 :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 2202-8700 (F) 445-2086 (H) www.lmikorea.com



# 제25회 『밀레니엄 경영자 제주섬머포럼』

## 격동하는 세계질서,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 주최 : 인간개발연구원
- 기간 : 2005. 8. 5(금)~8(월) 3박4일
- 장소 : 제주 롯데호텔

최근 세계는 인건배아복제, 유비쿼터스, 중동문제, 환율문제 등 새로운 이슈와 사건들 속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기업의 변화와 혁신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인간개발연구원은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과 최근 변화의 트렌드를 읽고 한국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05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을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제주에서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미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힐러리 상원의원을 초청하여 21세기 세계 평화질서 유지를 위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한미 북미 관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이에 한국의 견해를 대표하여 이해찬 국무총리를 모시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포럼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첫날은 기초강연으로 하반기 경제전망을 위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초청특강으로는 이여령 중앙일보 고문을 모십니다. 그리고 경영전략 구상

을 위한 경영사례로서 박문덕 하이트맥주 회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윤수 필라코리아 사장을, 금융특강으로 신상훈 신한은행 지점장, 이영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을 강사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특강으로 최근 한류의 대명사인 일본 온사마열풍을 일으킨 재일교포 영화인 이봉우 시네라논 사장과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 BRICs를 주제로 김종웅 한국경제연구원 회장을 모십니다.

그 외에도 미국을 무대로 활동중인 방송인 자니윤, 29년간 히트광고를 줄줄이 만든 문애란 웰커뮤니케이션 사장, <단>의 저자인 소설가 김정민, 최혜영 클래스A 티칭골프협회 대표, 미래사회의 청사진이 될 문화사업을 주제로 삼성문화재단 한용외 사장을 강사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와 브로셔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의 하반기 경영전략 구상과 휴식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들은 지식의 충전과 함께 이종기업간의 교류를 통한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되오니 오피니언 리더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모든 사람은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어디 성공이 쉬운 일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태도가 좋으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의 요인으로서 태도와 재능 중 어떤 것이 중요할까. 대다수의 리더십 전문가들은 태도를 선택한다. IQ가 높은 사람보다는 태도지수인 AQ(attitude quotient)가 높은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오늘 리더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다.

## 태도가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능력은 간발의 차이이다. 운동선수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육상이나 수영선수를 보자. 1등과 2등의 차이는 정말 미미하다. 야구선수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타자와 보통의 타자는 불과 1할의 차이에 불과하다. 기업에서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도 따지고 보면 능력에 있어서는 백지장 한 장 차이인 셈이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태도의 차이이다. 태도가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하여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상황은 항상 가

변적이다. 상황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태도가 결정해 준다. 산업사회에서는 성실과 근면이 중요한 태도의 덕목이었다. 지식사회에서는 성실과 근면만으로는 부족하다. 적극성, 도전성, 협조성, 창의성이 강조된다. 이들 대부분이 태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능력도 태도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태도가 좋은 사람에게는 능력개발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그래서 LMI리더십의 창시자인 폴 마이어 회장은 '태도는 만능이다(Attitude is everything)'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유태인은 미국에서 600만 명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기도 하다. 그러면 유태인은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것인가. 아니다. 그들의 태도가 머리를 좋게 만든 것이다. 유태인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통해 터득한 게 있다. 물질적인 재산을 아무리 쌓아도 상황이 변하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히틀러 치하에서 살았던 유태인들이다.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상당수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 나라 없는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머리에 투



자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의사나 과학자 등 전문적인 분야에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이른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민족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상을 지낸 골다 메이어의 말은 이를 증명해 준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은 정신력이다. 우리에게서 석유로 벌어들이 달리가 없다. 지하자원도 없다. 더욱이 우리는 세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력 뿐이다. 국민들이 정신력을 잃으면 미국마저도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다."

**태도란 행동으로 표시되는 자기 내면의 감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리더십이란 태도관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먼저 리더 자신이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태도란 행동으로 표시된 자기 내면의 감정이다. 그러므로 태도는 한 마디도 표현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표출된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태도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1. 태도는 진정한 우리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다.
2. 태도의 뿌리는 내부이나 그 열매는 외부이다.
3. 태도는 가장 좋은 친구 아니면 가장 나쁜 친구이다.
4. 태도는 말보다 더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다.
5. 태도는 과거의 경험에서 생겨난 외부의 모습이다.
6. 태도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
7. 태도는 표현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는다.
8. 태도는 우리의 과거의 도서관 직원이다.
9. 태도는 우리의 현재의 스피커이다.
10. 태도는 우리의 미래의 예언자이다.

**태도는 직장와 사회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

태도의 중요성은 최근 중앙일보가 40대 대기업 신입사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기업들이 면접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는 '인성 및 태도'로 나타났다. 사람 됨됨이를 보는 항목이다. 아무리 전공지식이 뛰어나고 영어를 잘해도 기본적인 품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점 비중을 20% 이상씩 반영했다. 그 다음이 직무지식과 영어능력이었다. 지난 해 삼성전자는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늦깎이 한 사람을 뽑았다고 한다. 그는 서울의 중위권 대학 공대 출신으로 학점도 거의 바닥권 수준이었다. 대신에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고 남에게 없는 능력을 익혔다. 지르박, 탕고, 힙합 등 댄스 실력도 갖추었다. 삼성전자 임원이 "춤 한 번 춰 보라."고 주문하자 자신의 춤 실력을 유감 없이 보여준 게 주효했다. 그의 다양한 인생경험과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높은 점수를 받아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했다.

떨어진 사람들 역시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채현장 집단토론에서 지원자들은 10분씩 그룹을 지어 20분간 토론을 벌였다. 각자 2분 정도의 발언시간을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A씨가 5분이 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바람에 B씨는 주어진 시간에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B씨는 최하점을 받았다. 면접위원들은 "흐름을 잘 타지 못해 발언 기회를 못 잡는 사람, 기회가 와도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A씨 역시 나쁜 점수를 받았다. 집단토론에서 평가의 주안점은 얼마나 남과 잘 어울리며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A씨는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협조성 부족, B씨는 적극성 부족이 불합격의 원인이었다.

태도야말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우리 국민의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변화를 통해 리더십과 일하는 자세를 바꾸자**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일하는 태도가 과거 고도성장기 때와 다르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앞으로도 발전의 소지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흔히 '마른 길레도 다시 짜서 쓴다'는 선진국에서는 물이 별로 나오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마른 길레를 다시 짜면 물이 나온다는 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만큼 태도변화를 통해 리더십과 일하는 자세를 바꾸면 생산성 향상의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리더 자신은 지식사회에서 적합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보자. 리더와 구성원들의 태도가 변하면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人間**



# 최혜영의 반대로 하는 골프

최혜영 CATA golf Academy 대표

골프를 반대로 생각하자! 골프는 지면에 정지되어 있는 볼을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운동이다. 정지되어 있는 것과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은 반대의 현상이다. 곧 골프는 반대로 실행하는 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 골프를 스포츠로 즐겼으면...

예전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프는 시간 많은 부르주아들이 즐기는 신선놀이'이라며, 골프 이야기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경멸하기까지 했다. 또 '골프가 무슨 운동이 되느냐'며 다른 스포츠와 차별화 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골프를 시작하여 지금 막 재미를 붙인 사람들 역시 '운동 삼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골프는 게임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운동 후기의 기쁨이나 상쾌함을 맛볼 수 있는 운동은 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기도 하고, 근육을 잘못 사용해 몸에 무리가 가기도 한다. 또한 골프만큼 자기가 즐기는 스포츠 게임을 위해 그렇게 많은 연습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의사나 교수, 정치인, 사업가들의 두뇌를 국가, 사회, 개인의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는 대신 골프 연습장에 쏟아 붓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예를 들어 "내일 테니스 한 게임 칩시다." 또는 "볼링 한 게임 합시다."라고 약속한 뒤 그 게임을 위해 그렇게 많은 연습과 준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골프 게임을 약속한 후에는 그 전날 "몸을 풀어야 한다." "샷을 잡아야 한다."며 연습장으로 달려가 볼을 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3~4바스켓이나 볼을 치고도 샷을 잡지 못했다고 불안해한다. 지나친 연습으로 근육에 무리가 가서 오히려 스윙을 망가뜨려 필드에 나가 공을 잘 맞힐 수 있을까 걱정까지 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열과 돈을 투자해도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골프를 고민 덩어리로 안고 있으면서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재미 때문이다. 또 어떤 이들에겐 스코어가 좋든 안 좋든 잔디 위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환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미 외에도 골프가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한몫을 차지하며, 더 나아가 그렇게 많은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스포츠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 연습만이 살길은 아니다

오랫동안 골프를 쳤으면서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스코어가 계속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 연습도 매일 하고 골프 코스에도 자주 나가는데 스윙에 대한 생각(swing thoughts)<그림 가>은 점

점 복잡해지고, 실제 골프장에 가면 볼을 맞힐 수가 없다. 이러한 때 가장 적합한 'Practice doesn't make perfect'라는, 미국 골프 코치들이 자주 쓰는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골프 게임을 자주 한다고 해서 스코어가 향상되거나 스윙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코스에서 볼을 잘 맞히려려면 근본적으로 근육메모리(muscle memory)가 바뀌어야 한다. 스코어 향상을 위한 올바른 스윙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스윙이 표현되도록 근육의 메모리를 쌓아가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올바르지 않은 골프스윙에 대한 메모리로 인해 혼돈이 일어나지만 올바른 스윙법을 차근차근, 매일 매일 쌓게 되면 아주 조금씩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골프 스윙을 위해 필요한 근육의 움직임을 메모리시키는 것이 골프 스윙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연습장에서 그저 볼만 친다든지, 올바른 스윙을 위한 지식이 아닌 나름대로 엉뚱한 이론을 바탕으로 그것을 계속 연습한다든지<그림 나> 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 좋은 방법이 아니다.

## 올바른 내용을 근육에 기억시켜야...

간단하게나마 골프 클럽에 대한 기능과 클럽이 어떻게 운용될지 정지되어 있는 볼이 날아가고, 또 방향성과 스피드, 즉 파워와 거리를 갖게 되는 것인지 아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그 다음 자신의 체형에 맞는 스윙을 배워 20~30일 동안 천천히, 매일 아침저녁으로 10~20번 정도 연습해서 그 동작을 근육에 확실하게 메모리시켜야 한다. 또는 스윙을 고치기 위해 볼을 치지 말고 천천히 고치려는 스윙 동작을 해본다든지 좀 더 빠른 시간 내 근육에 새로운 기억을 갖게 하려면 무거운 클럽이나 아령을 이용해 고치고자 하는 스윙 동작을 반복해서 꾸준히 연습한다.<그림 다> 그래서 고치고 싶은 부분의 스윙을 클럽으로 볼을 치며 연습하지 말고 근육에 메모리 되는 도구나 기구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그림 라>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근육 메모리의 또 다른 방법으로 책을 읽으며 고치고 싶은 부분의 올바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며 상상하는 것도 있다.<그림 마> 상상은 근육에 메모리를 남긴다. 실제 움직임으로 해보는 것보다는 메모리가 약하지만 올바른 메모리가 여러 번 거듭된다면 실제 볼을 치며 올바르지 않은 근육 메모리가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그림 가〉



〈그림 나〉



〈그림 다〉



〈그림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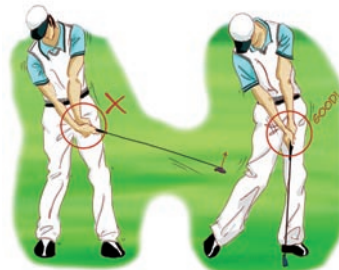
〈그림 마〉

**골프를 반대로 생각해보자**

골프란 지면에 정지돼 있는 볼을 공중으로 날리는 운동이다. 정지돼 있다는 것과 공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은 반대다. 그러나 골프라는 스포츠를 처음 접할 때부터 볼을 띄워야겠다는 마음에 클럽을 들어올리는 동작〈그림 가-1〉을 한다. 결국 클럽 헤드가 지면에 정지해 있는 볼까지 가지 못하고 볼의 윗부분만 스치거나 아예 볼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클럽을 들어올리는 동작 대신 클럽 헤드를 지면으로 떨어뜨리는 동작〈그림 나-1〉을 취해보자. 공을 띄우려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 공은 점점 가라앉게 되고, 클럽을 지면에 내릴수록 공이 뜨게 되는 것이다. 클럽 헤드를 지면에 내리면 내릴수록 볼이 위로 뜨는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나고(어떤 미국의 골프 코치가 처음 골프를 하는 이들에게 'Down under the ball'이라는 노래를 먼저 가르치는 이유도 처음부터 떨어뜨리는 동작으로 볼을 치는 습관을 없애고자 함이다), 클럽 헤드를 공중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볼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이치이다.

또 볼의 방향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볼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면 골퍼들은 볼을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 몸을 목표방향의 왼쪽으로 한다. 왼쪽으로 에임을 하게 되면 볼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스핀이 생겨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 볼을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몸을 목표방향의 오른쪽으로 해야만 볼이 쉽게 왼쪽으로 가게 된다.〈그림 다-1〉 또 볼이 왼쪽으로 날아가면 골퍼들은 볼을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 에임을 오른쪽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볼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스핀이 생겨 더 왼쪽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볼을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몸의 에임을 더욱 왼쪽으로 해야 한다.〈그림 라-1〉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인 것이 골프라는 스포츠를 이해하는 기본이다.

골프 스윙의 90%를 좌우하는 그림도 반대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볼을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두 손을 오른쪽(시계바늘 방향)으로 돌려 잡으면 된다.〈그림 마-1〉 또 볼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두 손을 왼쪽(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돌려 잡으면 된다.〈그림 바-1〉 **人間**



〈그림 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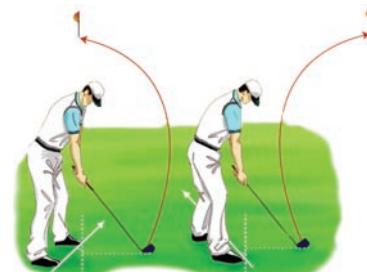
〈그림 나-1〉



〈그림 마-1〉



〈그림 바-1〉



〈그림 다-1〉

〈그림 라-1〉



**최혜영 대표**

1960년 생 / 한국 국적 최초 美 LPGA Class A Teaching Member / 美 lpga.com stats & news에 2004년 뉴스의 인물로 게재 / 美 LPGA Asian Member Advisor / 경희대 체육대학, 골프경영학과 객원교수, 최고위과정 교수 / 연세대 최고위과정 강사 / 조선일보, 매일경제 2001~2004년 골프 칼럼 연재 / Choigolf Academy, CATA(Class A Teaching Association) golf Academy 대표

# 불안한 세계경제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지난 수년간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것은 미국·중국의 쌍두마차였다. 미국은 엄청난 정부지출과 민간소비를 통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4년에 6,655억 달러, 즉 GDP의 6%에 달하고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상태가 영구히 지속될 수는 없다.

중국은 외국직접투자의 유인과 수출 및 수입의 엄청난 증가로 세계경제를 도왔다. 일본이나 한국의 경제에 있어 대중국 의존도는 크게 늘었다. 2004년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의 흑자는 803억 달러로 전체의 12.1%였다. 그러나 중국의 총 경상수지는 거의 균형상태에 있다.

미국은 그 동안 중국에 대해 위엔(元)화의 가치를 올리는 조치, 이를 테면 변동환율제와 평가절상 등을 취하라는 압박을 가해 왔다. 최근 미국의회는 만일 중국이 6개월 이내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27.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과연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元貨를 절상시킬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아는 사람은 물론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은 환율을 올려도 큰일이고 안올림으로써 27.5%의 관세를 당해도 큰일이라는 점이다. 元貨화 가치를 올린다고 미국의 적자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왜냐. 다소의 절상을 가지고는 미국의 對中적자는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계속 추가절상을 요구할 것이며, 세계의 투기 자금은 앞으로의 절상을 기대하여 元貨를 사들일

것이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이것을 감당할 만큼 발전되어 있지 않다. 元貨에 대한 극렬한 투기는 중국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중국은 대폭 절상보다는 오히려 수출에 대한 27.5%의 관세를 무는 것을 선호할는지 모른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절상을 하면 미국경제는 좋아질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못할 것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겠지만 중국 이외의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저축이 늘지 않는다면, 중국이 무엇을 하던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은 거의 없을 것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재미를 보던 많은 미국기업은 손해를 볼 것이다. 아마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도 어려워져서 미국 농민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7.5% 관세의 여파는 2차대전 이전과 같은 환율전쟁,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세계의 통상질서는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세계를 이끌어온 쌍두마차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세계경제는 크게 불안하게 됐다. 미국의 문제는 저축이 너무 적고 수입이 너무 많은데도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다는데 있다. 중국의 문제는 금융구조가 아직 너무 원시적이어서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을 허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 27.5%의 관세를 물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의 처지를 몰라서인가. 그럴 리는 없다. 자기만이 득을 보자는 것인가. 그것도 아닐 것이다. 아마 쌍두마차 자체가 귀찮다는 뜻이 아닐까. **人間**





신용보증기금은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다집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웁니다.

중소기업

힘내세요!

당신의 용기를 사랑합니다

2005년,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창업초기 기업에 창업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성장단계에 있는 수출중소기업과 유망서비스업 등 영위 기업에 사업확장자금과 설비투자자금을,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 개·보수자금을,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Network Loan 보증' 과 '전자상거래보증' 을 지원하겠습니다.